KOBA 2019

제29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개최

29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제29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가 '미디어, 선택을 만들다.(Media, Make a Choice)'라는 주제로 2019년 5월 22일(수)부터 25일(토)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A, C, D홀 및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1. 5월 22일 11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KOBA 2019 개막 커팅식
2. 개막식 VIP를 위한 사전 대기실
3. 부스에서 전시 소개와 이슈에 대해 소개받는 주요 인사
4. 개막오찬에서 축사 중인 이종걸 의원
5. 전시 소개를 경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막식에는 이종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정훈 한국방송협회 회장, 정필모 KBS 부사장, 최승호 MBC 사장, 김명중 EBS 사장, 박성희 OBS 사장, 이승열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이강택 tbs 사장, Vincent Grivet(HbbTV Chairman), Sam Matheny(NAB CTO), 임형준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회장, 김충한 이앤엑스 회장,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등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시장을 방문해 티브이로직, 캐논, 삼아GVC, 소니, 파나소닉 부스를 돌아보며 최신 방송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열린 개막오찬에서는 이종걸 의원, 김석진 부위원장, 장석영 실장이 축사를 통해 KOBA 개막을 축하했으며, 22일 오후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도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보았고, 24일에는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작년에 이어 KOBA 전시장을 찾아 선진 기술을 확인했다.

올해 KOBA 2019에서는 35개국 906개사가 참여하여 4K/8K UHD 방송, HDR, IP 네트워크 및 12G-SDI 솔루션, CDN, AR/VR, OTT 등 첨단 방송기술을 전시하였으며, AI, 5G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응용한 방송 솔루션도 선보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특히 1인 방송장비를 전시한 부스가 대거 늘어날 정도로 유튜브를 필두로 하는 1인 방송 시대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임을 증명한 듯 보였다. 1인 방송 미디어 특별관을 비롯해 다수의 부스에서는 1인 방송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놓고, 카메라, 조명, 모니터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짐벌 등을 전시하여,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는 경제적인 소형의 장비만으로 충분히 방송이 가능해진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듯 보였고, 멀티캐스트가 아닌 유니캐스트의 방송 패러다임 변화와 양방향성의 정보 양상도 이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다.

1. 1인 미디어 특별관의 시연 및 전시 존
2. 방송 카메라를 직접 체험 중인 관람객

KOBA 전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로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풍부했던 만큼 참관객도 43,905명으로 연일 전시장에는 북적였으며, 23일 목요일에는 14,207명이 방문하여 KOBA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5월 22일 월드미디어포럼과 글로벌 UHD 컨퍼런스는 NAB, EBU, HbbTV의 방송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지역의 미디어 양상과 콘텐츠, 기술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참석자가 눈에 띄어 보였다. 또한, 23일~24일 개최된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에서는 UHD 방송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유통에 대해서 강의를 선보였으며, 재난방송과 디지털 저널리즘 등 방송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이슈의 강의도 개설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밖에 HiFi Audio Show in KOBA는 작년보다 시연 부스와 공간이 증가하여 KOBA 전시 관람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을 받았다. KOBA 데일리 뉴스는 22일~24일 3일간 발행되며 KOBA의 이슈를 수록했으며, 최신 기술과 방송 정책, 전시업체 뉴스 등으로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

KOBA 2019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전시로 국내 유일의 방송미디어로의 가치를 충분히 해내었으며, 도쿄올림픽 등의 국내외적 이벤트가 있을 2020년에는 8K 방송을 비롯한 스트리밍 솔루션,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KOBA 2020 전시회는 2020년 5월 13일~15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1. 글로벌 방송기술 이슈를 다룬 월드미디어포럼
2.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3. 훌륭한 교육 및 지식 공유의 장이 되기도 했던 전시 부스